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9)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복음인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나에게 엄청난 특권과 약속과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음을 보여준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납하셨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를 믿는 나의 죄를 용서했으며, 나를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할 수가 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로 그를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골 1:13)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롬 6:11)고 말씀하신 그대로이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나의 부활을 보증하며 확신시켜 준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 15:52).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믿었던 죽은 자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다 변화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자신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부활 신앙이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다.

넷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날마다 죄의 욕망과 습관에 대하여 죽고, 죽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능케 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고 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의 죄의 욕망과 습관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죽어야 우리가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라고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빌 3:10-11)라고 고백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욕망과 욕심과 습관을 죽여야 한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죽는 삶을 살아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며, 내가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과 과시와 싸움과 분쟁과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된다는 세상적인 처세술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 8:34)고 말씀하신다. 날마다 나를 죽여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

다섯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준다. 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것인가? 그것은 부활의 소망과 약속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고 말씀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헛수고하는 일이 많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 있다. 무엇인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이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일할 곳이 많은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수고하라고 보내신 줄 알고 감사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날마다 죽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을 맛보며, 부활의 복음과 소망 가운데 헛되지 않는 가치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의 재림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다!